

덕수궁 선원전(璿源殿)영역의 조경 복원정비 계획

소현수* · 김미정**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부교수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박사과정

A Landscape Restoration and Maintenance Plan in the Seonwonjeon of the Deoksugung Palace

So, Hyun-Su* · Kim, Mi-Jeong**

*Associate Professor,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Doctoral Course, Graduate School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ABSTRACT

The Seonwonjeon(璿源殿) in the Deoksugung Palace was initially the ritual space for the royal family affiliated with the Gyeongung Palace during the Korean Empire. It is currently, however, empty, as a landscape restoration and maintenance plan is established as a part of the restoration project for the Seonwonjeon area.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through the historical investigation of the original form and examination of similar cases.

First, the original topography of the backside grove, which had been in the Seonwonjeon area, is 3.0-5.0m higher than the base of the building, and a terraced flower bed(花階) was installed on the border of the green to set off the difference in a scenic way. Second, the backside grove was composed with fruit trees to bear fruits used in rites and pine trees which symbolize the ritual space. Third, resting places were established at both ends of the site for the convenience of visitors without interrupting the atmosphere of the sacred ground. A trail was also created inside the backside grove along with minimum landscape elements, including functionally required items, such as the signboard, bench, tree guard, ramp, street lights, and landscaping lights. Fourth, the information on original planting in the palace and ritual space was extracted through historical materials, such as literatures, antique paintings, and photographs along with site surveys. Based on the information acquired, a planting plan was established for the courtyard, pedestrian road, resting places, terraced flower bed, pine grove, and fruit tree garden, which constitute the landscaping space of the Seonwonjeon area.

Key words: Backside Grove, Gyeongung Palace, Original Landscape, Ritual Space

국문초록

대한제국 시기 경운궁에 부속된 왕실의 제례공간이었으나 현재 비어있는 덕수궁 선원전영역의 복원 사업으로서 조경 복원정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원형 고증과 유사 사례 고찰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선원전영역에 있었던 전각 배후림의 원지형이 전각의 기반보다 3.0~5.0m 높아서 녹지 경계부에 화계를 설치하여 경관적으로 처리하였다. 둘째, 배후림은 제례에 사용하는 과실을 얻기 위한 유실수원과 제례공간을 상징하는 소나무림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궁궐 방문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역(聖域)의 분위기를 방해하지 않도록 부지 양쪽 끝에 휴게공간을 배치하고, 배후림 내에 산책로를 도입하였으며, 최소한의 조경시설로서 기능적으로 요구되는 안내판, 휴게의자, 수목보호대, 경사로, 보행등·경관조명등을 도입하였다. 넷째, 문헌, 고회화, 사진 등 사료(史料) 고찰과 현장 조사로 궁궐과 제례공간의 기존 식재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원전영역 조경공간을 구성하는 전각 마당, 관람로와 휴게공간, 화계, 소나무림, 유실수원의 배식계획을 수립하였다.

주제어: 경운궁, 배후림, 원형경관, 제례공간

[†] **Corresponding Author** : Kim, Mi-Jung,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Seoul 02504, South Korea, Tel.: +82-2-6490-2835, E-mail : asura710@hanmail.net

I. 서론

2000년대까지 전통조경공간의 원형 복원과 정비 기본계획을 제시한 연구 성과들이 학술지에 수록되었으나 현재 정체된 분위기이다. 이것은 조경계획과 설계안을 도출한 결과에도 객관적 설득력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학문 풍토가 변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창의적 디자인 결과물을 산출하는 조경 작업에서도 작가의 예술적 주관이 개입되기 전에 '계획'이라는 합리적 전제가 전제된다. 따라서 멸실된 문화재공간을 복원하려는 과제의 경우 학문 공동체가 공감할만한 방법을 적용하여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의 대상인 덕수궁 선원전영역은 돈덕전이 자리한 덕수궁 담장 모서리와 인접해있는데, 대한제국 시기 경운궁에 부속된 왕실의 제례공간이었으나 1988년 이후 비어있는 부지로서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현재 문화재청은 선원전영역의 복원 사업을 추진 중인데, 2005년에 수립한 '덕수궁 복원정비 기본계획[1]'에서 선원전영역의 전각에 대한 문헌 고찰이 이루어졌으며, 2014년[2]과 2019년[3]에 건축 중심의 전각 복원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하지만 제례공간의 배후림¹⁾이었던 녹지의 복원계획은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았다. 2016년에 작성한 '덕수궁 조경정비 기본계획[4]'에서도 선원전영역은 제외되었다. 또한 선원전영역에 대한 연구 성과로 경운궁 선원전 중건시 의궤(儀軌)와 현존하는 전각을 고찰하여 건축적 특성을 도출하였으며[5], 덕수궁 선원전을 원형복원이 아니라 정동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문화사적 측면의 복원을 제안한 바 있다[6].

조경분야에서 학술 연구가 진행된 바 없는 여건에서 본 연구는 문화재청이 발주하여 2020년 3월부터 11월까지 수행한 '덕수궁 선원전영역 조경 복원정비 종합계획 연구[7]'의 결과물로서 문화재 조경공간을 회복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소개하고자 한다.

궁궐 복원이 전각 위주로 이루어지는 여건에서 식생경관 복원의 중요성이 제기됨으로써 김영모 외(2004)는 준거가 되는 사료와 자료를 통한 원형 식생경관 고증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8]. 또한 김충식과 정슬기(2018)는 경희루 권역의 식생경관 원형을 파악하고 성장한 수목의 조절을 제안한 바 있다[9]. 본 연구 역시 선원전영역의 원지형과 식생경관을 심도있게 고증하고 객관적 절차를 마련하여 식생경관 조성 방안을 도출하였다. 여기에 궁궐 복원의 완전성을 갖추기 위하여 방문자 편의를 고려한 외부공간 조성 계획을 포함하였다.

II. 연구방법

1) 덕수궁 선원전영역의 연혁

경운궁²⁾이 가장 확장되었을 때를 보여주는 「경운궁중건배치도(1907~1910년)」는 덕수궁 중심영역, 선원전영역, 증명전영역, 홍원³⁾영역으로 구성된다[2]. 지금은 당시보다 영역이 크게 줄어서 현재 덕수궁이라고 불리는 영역과 증명전만 보존된 상태다. 선원전영역은 선왕들의 어진(御眞)을 모셨던 선원전(璿源殿), 빈전(殯殿)으로 사용했던 흥덕전(興德殿), 신주(神主)를 모신 혼전(魂殿)이었던 흥복전(興福殿) 일원을 지칭한다. 1897년 경운궁 내부에 창건되었던 선원전은 1900년 화재로 전소되면서 1901년 수어청(守禦廳) 부지로 옮겨 중건되었으며, 고종 승하 후 1920년에 훼손되고, 1921년 창덕궁으로 이전하여 현재의 신선원전을 건립한 것이다. 이후 선원전영역의 부지는 1920년에 불교중앙포교소로 사용되고, 1922년 경성제일공립고등학교가 건립되었으며, 1934년 조선저축은행 사택, 1949년 미국대사관저가 세워지고, 1945년부터 1988년까지 경기여자고등학교가 사용하였다. 이러한 역사를 거치면서 선원전영역은 궁궐로서 역사성을 상실하였다.

2011년 문화재청으로 부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2013년부터 발굴조사를 진행하여 흥덕전과 흥복전 복원을 위한 유구의 정보를 축적하였으며, 선원전 발굴조사도 곧 진행될 계획이다.

2) 연구의 대상

선원전영역은 북쪽으로 지하철 서대문역과 광화문역 사이에 늘어선 고층빌딩들과 서쪽 경계에 면한 아파트가 감싸고, 동쪽에는 2차선 도로 맞은편에 서울덕수초등학교와 구세군역사박물관 등 저층 건물들이 있다. 남쪽 경계부를 따라서 2018년에 개방된 '고종의 길'이 구러시아공사관이 입지한 정동공원까지 연결됨으로써 근대라는 시대성을 공유한다.

문화재청 보고서[2],[3]에 제시된 복원계획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덕수궁 선원전영역 조경계획의 대상은 세 개의 전각 주변 외부공간과 식재경관을 구성하는 전각 배후림이다(그림 1).

3) 연구의 내용

궁궐의 원형경관 복원과 관련하여 안계복과 이원호(2014)는 원형 판단을 위한 준거로서 통시성과 공시성, 시원성과 시대성, 불변성과 변형성이라는 대립되는 개념이 반영되어야 하며, 대상지에 대한 사료와 사진 등 자료 발굴로 궁궐의 원형에 대한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11]. 선원전영역의 원형경관이 지속된 시기는 경운궁 바깥으로 부지를 확장하여 선원전을 중건한 1901년부터 1910년까지이다(그림 2). 따라서 본 연구는 원형경관과 변형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선원전영역의



그림 1. 덕수궁 선원전영역의 복원계획도



그림 2. 1910년대 후반 선원전영역과 배후림[12]

중전기부터 궤철이 이루어진 1919년부터 1921년을 지나서 근대 이후 경기여자고등학교 등 다른 용도로 부지를 사용한 1988년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부지에 현존하는 원형 경관요소는 홍덕전 마당에 식재된 회화나무 노거수 한 주 뿐이다(그림 3). 이에 원형경관을 고증하기 위해서 『경운궁중건배치도』, 『대한여지도 한양경성도(1900년)』 등 고지도, 『경운궁중건배치도』와 『덕수궁평면도(1910년)』 등 근현대지도, 일제강점기 유리건판사진 및 사진엽서 등을 참고하였다.

선원전영역의 조정 복원정비 계획은 원형경관의 바탕을 형성하는 원지형 복원 계획, 방문자 편의를 고려한 공간구성 및 동선 계획과 시설물 계획을 포함하는 외부공간 조성 계획, 그리고

전각 주변과 배후림의 식생경관 조성 계획으로 구분하였다.



a. 홍덕전 회화나무 노거수(1903, 영국뉴캐슬대학 소장)[2]



b. 현재까지 남겨진 회화나무 노거수

그림 3. 선원전영역의 원형 경관 요소인 회화나무 노거수

III. 결과 및 고찰

1. 원지형 복원 계획

1) 원형경관 고증

1903년부터 1958년까지 작성된 지도에서 선원전영역의 원지형이 변화된 시기와 주요 경관요소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경운궁중건배치도』에 표현된 선원전영역의 오른편 부지는 1921년에 관통도로가 개설되면서 잘렸으며, 대부분의 전각들이 훼손되었으나 이 당시까지는 배후림이 유지되었다(그림 5b).

또한 『1915년 측도 경성(1915)』[13]에 표현된 등고선으로 선원전영역은 남쪽 +50.0에서 북쪽 +32.5까지 완만한 경사지였음을 확인하였다. 식생경관과 관련하여 녹색 수목 심별이 표현된 배후림이 세 개의 녹지로 구성되고, 녹지 내부에 표기된 기호가 과원(果園)과 침엽수림이라는 사실을 범례에서 파악하였다(그림 4).

2) 원지형 추정

원형경관을 보여주는 『1915년 측도 경성(1915)』, 선원전 해체를 기록한 『1921년 수정측도 경성(1921)』[14], 근대건물이 신축된 시기가 표현된 『경성지도(1930년 전후)』[15]로 지형변화를 추적하였다(그림 5). 경성제일공립고등학교를 신축하면서 지형이 크게 변했는데, 홍복전과 홍덕전 위치까지 평탄지

가 확대된 양상이다.

『덕수궁 선원전영역 학술조사연구용역(2019)』 보고서에서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흥복전 전각 +32.0, 흥덕전 전각 +34.5, 선원전 전각 +39.0으로 복원계획을 제시하였다. 여기에



그림 4. 「1915년 측도 경성(1915)」에 표현된 식재 정보

「1915년 측도 경성(2015)」의 등고선을 넣은 도면을 보면, 전각 일대보다 배후림의 지형이 3.0~5.0m 높다(그림 6). 이러한 여건과 관련하여 「덕수궁평면도(1910)」[16]에서 전각과 배후림의 경계에 화계가 설치되었음을 확인하였다(그림 7). 건축에서 작성한 두 개의 선원전영역 복원계획 보고서[2],[3]에는 누락되었던 구조물 정보를 이번 작업에서 파악한 것은 배후림 경관을 조성하는데 필수 요소로서 의미있는 성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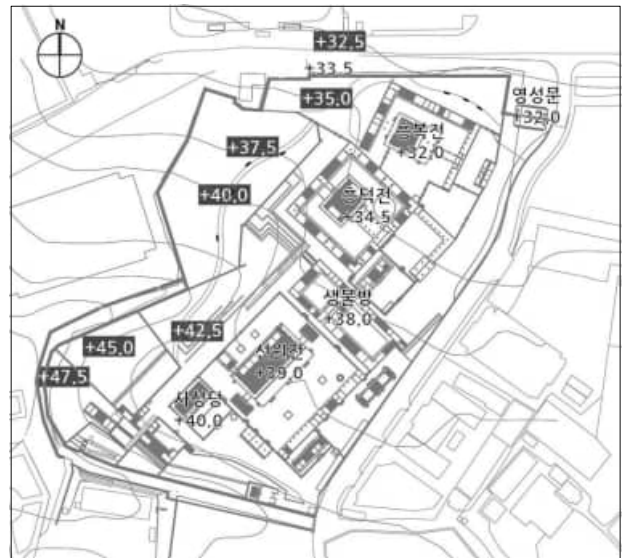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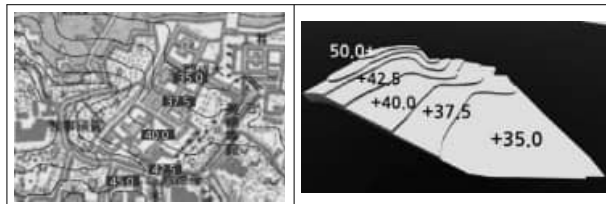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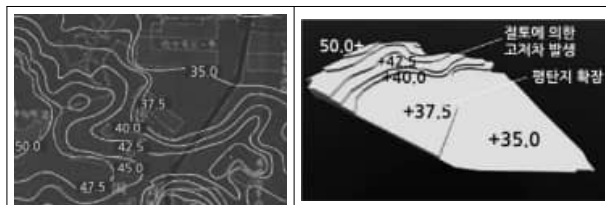
그림 6. 덕수궁 선원전영역 복원계획도[3]에 「1915년 측도 경성(1915)」의 등고선을 넣은 도면



a. 「1915년 측도 경성」의 지형 정보



b. 「1921년 수정측도 경성」의 지형 정보



c. 「경성지도(1930년 전후)」의 지형 정보

그림 5. 지형도로 본 선원전영역의 주요 지형 변화



그림 7. 「덕수궁평면도(1910)」에 표현된 화계

3) 배후림의 지형 조성 계획

앞서 등고선을 통해서 고지인 배후림 일대의 지형은 부지 남쪽에서 북쪽으로 낮아진다. 원지형의 정보대로 계획해야겠지만 배후림보다 3.0~5.0m 낮은 전각의 레벨과 부지 북쪽에 인접한 도로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하였다. 흥복전 후

면에 접한 배후림의 원지형은 +35.0으로 흥복전보다 3m나 높기 때문에 2019년 보고서에서 제시한 +33.5를 고려하여 배후림이 시작되는 위치의 지반고를 +34.0으로 1m 낮추었다. 부지 서쪽에서 선원전 후면 방향으로 낮아지는 배후림의 남쪽 끝단은 원지형인 +45.0으로 계획하였다(그림 14). 다만 현재 인접부지의 건축물과 도로 레벨을 고려하여 「1915년 측도 경성」보다 등고선 간격이 부분적으로 좁아지는 형태로 계획하였으며, 부지 남쪽 '고종의 길'에서 배후림까지는 원지형에 가깝도록 사면 녹지로 구성하였다.

2. 외부공간 조성 계획

1) 공간구성과 동선 계획

궁궐에는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공간이 존재하므로 관리와 정비의 효율성을 만족시키는 구역 외부공간을 구성하기 위하여 사례를 조사하였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의 구역 구분 방식을 기본계획 보고서, 궁궐 홈페이지, 관리사무소가 작성한 자료를 고찰한 결과 관리 목적에 따라서 구역의 구성 방식이 상이하여 적용 기준을 찾기 어려웠다. 이에 외부공간의 기능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선원전 영역은 복원의 핵심이 되는 전각 주변 위요 공간, 배후림, 관람로 기능을 담당하는 전이공간, 방문자 휴게공간, 관리 및 지원 공간으로 구분하였다.

휴게공간은 제례공간이라는 성역의 차분한 분위기를 고려하여 방해되지 않는 위치인 부지 동쪽과 서쪽 경계부에 두 군데 조성하고, 북쪽 도로변에서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고 문화재공간과 이격된 북쪽 모서리에 관리 및 지원공간을 확보하였다.

관람로는 주출입구인 영성문(永成門)에서 시작하여 부지 끝단까지 남북 방향으로 형성되는 관람동선이 관리 및 방재 기능을 만족시키며, 여기서 직각 방향으로 세 개의 전각을 둘러싸는 회랑 안쪽으로 출입할 수 있다. 덕수궁과 인접한 남서쪽 모서리와 부지 서쪽에 면한 고종의 길에 부출입구가 설정되며, 전각의 뒤편을 거쳐 북쪽 배후림 입구까지 접근할 수 있다. 과거에는 없었지만 소나무림과 유실수원 내부에 산책로를 도입



그림 8. 선원전영역의 외부공간 구성과 동선계획

하여 방문자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관리 차량의 진입을 고려하여 2m 폭원으로 계획하였다(그림 8).

2) 시설물 계획

『문화재수리업무편람(2021)』에서 문화재 주변 시설물로 제시한 42개⁴⁾가 문화재 공간에 도입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례조사를 시행하였다. 선원전영역은 덕수궁관리소가 담당하게 될 영역이므로 문화재청 공능유적본부 산하 관리소에 부속되고⁵⁾ 현재 관람 가능한 칠궁, 중명전, 사직단, 연산군묘, 조선왕릉 영원(英園)에 설치된 시설의 분포와 빈도를 조사하였다. 집계된 시설의 빈도를 문화재공간에서 범용성과 대상지의 특수성이라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모든 사례 공간에 설치된 경비초소, 안내판, 화장실, 소화시설 등은 필수 시설이다.

선원전영역의 외부공간에 필요한 기능을 고려하여 조경 시설을 결정하였다. 주출입구에는 종합안내판, 배후림과 회화나무 노거수에는 시설안내판을 배치하였으며, 전각 마당에 식재하는 교목을 위한 수목보호대를 도입하였다. 두 개의 휴게공간과 산책로에는 휴게의자를 배치하고, 지형의 고저 차가 발생하는 곳에 경사로를 설치하며, 방문자의 안전과 경관을 고려하여 보행등과 경관조명등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시설물은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문화재청 예규 제224호)」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배치하였다(그림 9).



그림 9. 선원전영역의 조경시설 배치계획도

3. 식생경관 조성 계획

1) 계획 방법

김영모 외(2004)는 화성 행궁을 대상으로 관련 사료에서 구체적인 수종과 식재 위치를 파악하고 식생 '재현' 방향을 설정하여 식재 복원 계획도를 작성하였다[8]. 선원전영역도 배후림

식생경관의 원형에 대한 정보의 한계가 있으므로 '원형식생 경관 복원'이 아니라 '식생경관 재현 혹은 조성' 계획을 마련하는 방향이 적합하다. 따라서 지도에서 파악한 원형 식생경관 이외의 사실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시적 접근으로 역사문화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유사 사례를 고찰하였다.

먼저 선원전영역을 구성하는 공간의 기능과 녹지 형태를 고려하여 사례 공간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대규모 녹지인 배후림에 대응하는 역사경관림과 유실수원 사례, 그리고 제례공간의 전각 마당의 식재 사례가 해당된다. 역사경관림은 종묘, 사직단, 경복궁 녹산(鹿山), 유실수원은 창덕궁 낙선재 맞은편 과원을 조사하였다.

『승정원일기』에 태묘(太廟), 남전(南殿), 경기전(慶基殿), 준원전(濬源殿), 선원전(璿源殿), 화령전(華寧殿)에 대하여 천자(天子) 즉, 중국의 전례를 따르라고 기록됨으로써⁶⁾ 제례공간 대부분은 비슷하게 구성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이에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20]에서 규정한 길례(吉禮) 중에서 대사(大祀)를 지낸 종묘와 사직단, 중사(中祀)를 지낸 경모궁(景慕宮), 소사(小祀)를 지낸 진전의 사례는 도성 내 진전인 창덕궁 구선원전, 신선원전, 도성 외 진전에 해당되는 영흥 준원전, 전주 경기전, 강화 장녕전(長寧殿), 화성 화령전, 함흥 본궁(本宮)을 조사하였다(그림 10). 여기에 흉례(凶禮) 중에서 빈전의 사례인 경복궁 태원전(泰元殿)이 포함된다. 이상의 대상지에 대한 사료, 고회화(그림 11), 사진(그림 12) 등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서 식재 개념도(그림 13)를 작성하고 수종 정보와 단식, 대식, 열식, 군식 등 배식기법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여 제례공간의 식생경관을 이해하였다.

다음으로 구역의 공간마다 요구하는 식생경관이 다르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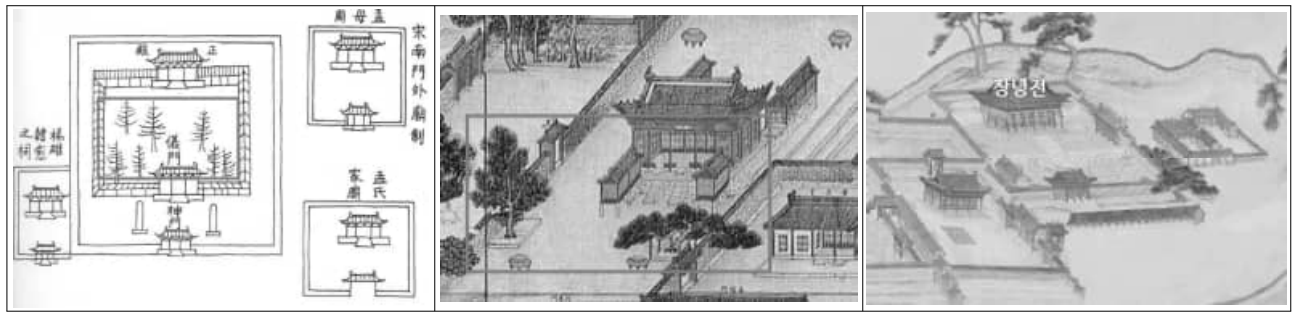
이를 고려한 식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각 마당, 관람로, 휴게공간, 고저 차가 있는 배후림의 경계를 형성하는 화계, 소나무림, 유실수원으로 구분하였다. 사례 연구로 추출한 구체적인 식생 정보를 토대로 하여 설득력 있는 공간별 도입 수종과 식재기법을 적용하고, 차폐식재와 녹음식재 등 공간 여건에 적합하고 차별화된 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식재 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도입 수종을 선정함에 있어서 생태환경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상지의 토양 등 환경 여건에 적합한 수목을 추정하고 생육을 고려한 배식기법을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식생경관 조성을 도모하였다. 전체 부지의 배식계획도를 작성한 후, 3D 작업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주요 공간별 입체적 식재 경관을 검토하면서 수목의 규격과 배치를 수정 보완하여 최종안을 결정하였다.

2) 원형 식생경관 고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후림은 유실수원 하나와 침엽수림 두 개로 구성되었는데, 구체적 수종 정보는 없다. 침엽수림을 구성할 수 있는 전통 상록수로 소나무, 잣나무, 향나무, 측백나무가 해당된다. 하지만 잣나무는 추운 기후에서 생육하기 좋으며, 향나무와 측백나무는 보편적으로 독립수로 식재하고 인공숲을 구성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또한 상록수 혼효림은 수종별 경쟁이 있어서 도태되기 때문에 대다수 전통숲에서 볼 수 있는 소나무 단일림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나대지 수준인 대상지의 토양환경은 건조한 마사토이므로 소나무림은 타당한 결정이다. 그밖에 유실수원과 전각 주변 공간에 도입할 식생경관은 기능에 적합한 유사 사례를 통하여 추출하였다.



그림 10. 『국조오례의』에서 규정한 조선시대 제례공간 (* 사례조사 대상지)



a. 송나라 「맹모도」[21]

b. 「동궐도」의 구선원전[22]

c. 「강화부궁전도」의 장녕전[23]

그림 11. 고회화에 표현된 제례공간의 식재 정보



a. 영흥 준원전[14]

b. 화성 화령전[14]



c. 함흥 본궁[14]

d. 경복궁 태원전

e. 창덕궁 구선원전

그림 12. 우리나라 제례공간에 식재된 소나무림



a. 창덕궁 구선원전

b. 경복궁 태원전

c. 경모궁

그림 13. 제례공간의 식재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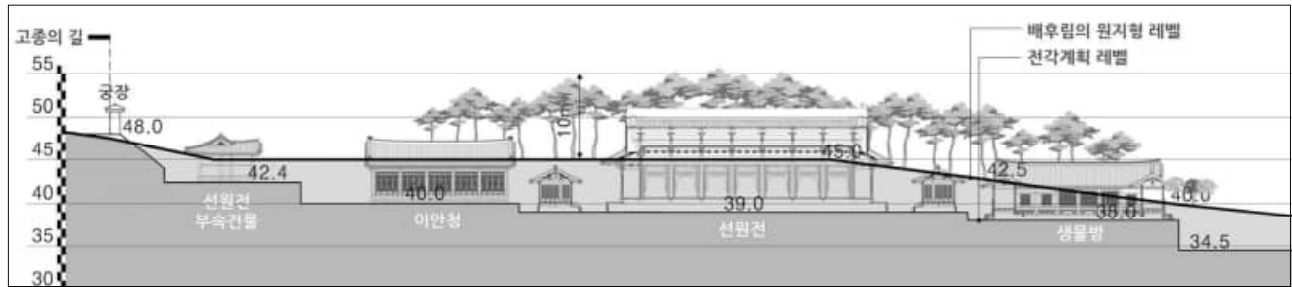


그림 14. 선원전 뒤편의 소나무림 조성 계획 입단면도(그림 9의 A-A' 위치 참조)

3) 궁궐에 식재된 수종

사례 조사한 제례공간 전각 주변에는 교목으로 상록인 소나무, 반송, 잎갈나무, 측백나무, 향나무와 낙엽인 감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매화나무, 버드나무, 복숭아나무, 은행나무와 관목인 앵두나무, 철쭉, 그리고 조릿대가 식재되었다. 창덕궁 낙선재 맞은편에는 잣나무, 밤나무, 배나무, 산수유, 살구나무, 복숭아나무, 뽕나무, 대추나무, 은행나무, 참나무류(상수리나무) 등 다양한 유실수가 식재되었다.

궁궐에 식재된 관목으로 개비자나무, 눈주목, 사철나무, 회양목, 쥐똥나무, 개나리, 국수나무, 광대싸리, 싸리, 조팝나무, 꼬리조팝나무, 노린재나무, 딱총나무, 무궁화, 백당나무, 진달래, 철쭉, 산철쭉, 백철쭉, 영산홍, 병꽃나무, 붉은병꽃나무, 병아리꽃나무, 산초나무, 서양수수꽃다리, 앵두나무, 오갈피나무, 옥매화, 왕초피나무, 이스라지, 좁작살나무, 짙레꽃, 참빗살나무, 탕자나무, 풀토기, 해당화가 있었다.

또한 경복궁 아미산, 창덕궁 낙선재, 창경궁 통명전 화계에 식재된 낙엽 관목은 개나리, 명자나무, 무궁화, 모란, 물싸리나무, 미선나무, 백당나무, 병아리꽃나무, 병꽃나무, 보리수나무, 산철쭉, 생강나무, 서양수수꽃다리, 앵두나무.

옥매화, 이스라지, 좁작살나무, 조팝나무, 죽단화, 진달래, 짙레, 철쭉, 풀토기, 황매화, 해당화, 회잎나무가 있었다. 초본으로 구절초, 금낭화, 기린초, 돌단풍, 동자꽃, 등글레, 붓꽃, 벌개미취, 범부채, 산국, 애기나리, 앵초, 옥잠화, 용담, 원추리, 작약, 참나리, 초롱꽃, 터리풀, 패랭이, 하늘매발톱, 할미꽃과 상록성으로 회양목, 조릿대, 맥문동이 포함되었다.

4) 배식 계획

(1) 전각 마당(그림 15a)

선원전 앞마당에는 창덕궁 구선원전과 동일하게 측백나무와 향나무를 대식함으로써 회랑 내부 전각으로 채워진 건조한 마당에 수목을 통해서 제례공간의 상징성을 부여한다⁷⁾. 또한 선원전 뒤편에는 과거 홍원영역 일대에 식재되었던 은행나무를 대식하여 장소성을 환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⁸⁾. 홍덕전 마당의 회화나무 노거수 하부에는 답압과 토양 건조를 방지하기 위

하여 음지에 강한 수호초나 맥문동을 식재하고, 홍복전 마당 모서리에는 초점식재로 조형소나무를 단식한다.

(2) 관람로와 휴게공간

영성문으로 진입한 관람로 왼편 경계 담장은 도로 개설로 이동한 것이지만 『1915년 측도 경성(1915)』에 표현된 것처럼 담장 앞에 넓은 녹지대를 확보하여 전각 중심의 인공경관을 시각적으로 완화하고 동선을 유도하도록 느티나무, 은행나무, 살구나무를 열식한다. 하부에는 옥매화, 병아리꽃나무, 해당화, 앵두나무와 관리가 용이한 돌단풍, 등글레, 초롱꽃, 용담, 산국, 구절초 등 자생초본으로 경관식재한다.

관람로상에서 시선이 머무는 결절점에는 수형이 양호한 청단풍과 감나무를 단식하고, 모서리 부분에 매화나무와 산수유를 삼점식재하여 건축공간의 경직성을 완화한다. 영성문 왼쪽 휴게공간에는 느티나무로 녹음식재하고, 병꽃나무, 해당화, 미선나무, 좁작살나무, 진달래, 앵두나무, 옥매화 등 관목을 식재하며, 녹지 경계부에 등글레, 초롱꽃, 벌개미취, 범부채, 원추리, 구절초 등 자생초본을 식재한다. ‘고종의 길’에 접한 남쪽 사면 녹지에는 소나무를 산식하여 배후림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앞쪽에 산수유, 매화나무와 진달래, 산철쭉, 병아리꽃나무, 미선나무를 식재하여 청단풍 녹음식재를 도입한 휴게공간의 배경 경관을 조성한다.

(3) 화계(그림 15b, c)

홍덕전부터 선원전에 이르는 구간에서 전각 지반과 배후림의 높이차를 해결하는 화계가 형성된다(그림 6). 따라서 『덕수궁평면도(1910)』의 평면 배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입체적으로 위압감을 주지 않도록 화계의 아랫단을 1.0~1.6m 높이로 계획하였다. 또한 긴 구간이 지루하지 않도록 화계의 식생경관을 차별화하였다. 상록성인 소나무림 앞 화계에는 앵두나무, 진달래, 백당나무, 미선나무, 옥매화, 병아리꽃나무와 함께 원추리, 범부채, 산국, 등글레, 돌단풍과 같은 자생초본을 식재하여 화사한 분위기를 계획하였다. 또한 계절 경관이 우수한 유실수원 앞 화계에는 상단에 반송을 요점식재하고, 가운데 단에는 크게



a-2. 선원전 마당의 향나무, 측백나무와 은행나무 대식 이미지



b-2. 소나무림 앞 화계 식재 이미지



c-2. 유실수원 앞 화계 식재 이미지



d-2. 소나무림의 식재 이미지



e-2. 유실수위의 식재 이미지

자라지 않는 낙엽관목으로서 꽃이 작고 질감이 부드러운 미선나무, 옥매화, 병아리꽃나무로 틀을 잡아주고, 녹지 폭이 좁은 하부에 수호초, 수크령, 등글레, 벌개미취, 초롱꽃, 돌단풍, 용담, 구절초와 같은 초본으로 차분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4) 소나무림(그림 15d)

제례공간의 배후림으로서 영흥 준원전(그림 13a)과 화성 화령전(그림 13b)은 소나무 단일림이고, 함흥 본궁에도 소나무가 식재되었으며(그림 13c), 복원된 경복궁 태원전(그림 13d)과 창덕궁 구선원전(그림 13e)에도 소나무림이 조성되었다. 선원전은 복원이 완료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10년 후를 목표로 하고, 보편적으로 소나무가 1년에 30cm 정도 성장한다는 기준에 의거하여 H5.0~H7.0 규격의 소나무를 도입하여 10m 수고로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만들도록 군식하였다(그림 14). 피도 80%를 만족시키도록 평면 배치 계획하고, 이후 수목을 간벌하면서 수형을 관리하도록 유도한다. 소나무 군식지 사이에 단풍나무, 때죽나무, 쪽동백을 산식하고 하부에 진달래, 산철쭉을 식재하며, 산책로 주변에는 시각적으로 질감이 부드러운 참억새, 수크령을 군식하여 방문자가 오감을 체험할 수 있는 경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부지 경계부에는 화살나무, 고광나무, 좁작살나무, 병꽃나무로 공간을 차폐하여 숲의 깊이감을 확보하였다.

(5) 유실수원(그림 15e)

제례에 사용되는 감나무, 배나무, 대추나무와 꽃과 열매가 아름다운 매화나무, 살구나무, 자두나무, 산수유를 산식하고 입구와 산책로 가까이 동절기 경관을 고려하여 동결도에 묘사된 바와 같이 소형소나무를 요점식재하였다. 개화 시기가 다른 진달래, 산철쭉, 미선나무, 앵두나무, 병아리꽃나무, 백당나무, 옥매화 등 화관목으로 계절 경관을 제공하며, 산책로에는 돌단풍, 등글레, 초롱꽃, 벌개미취, 범부채, 용담, 원추리, 산국, 구절초 등 자생초본을 식재하였다. 또한 부지 경계부에는 유실수를 피압하지 않도록 적당히 거리를 두어 졸참나무, 상수리나무, 밤나무, 쪽동백을 식재하여 배경림을 만들고, 하부에 황매화, 산철쭉, 털팽나무, 병꽃나무, 화살나무, 조릿대를 식재하여 공간감을 제공하였다.

IV. 결론

빈터로 남겨진 덕수궁 선원전영역의 전각을 복원하는데 요구되는 조경공간의 복원정비 계획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1915년 측도 경성(2015)」의 등고선으로 선원전영역

배후림의 원지형이 전각의 지반보다 3.0~5.0m 높으며, 「덕수궁평면도(1910)」에서 화계를 설치하여 경관적으로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둘째, 배후림은 「1915년 측도 경성(1915)」의 범례를 통해서 제례에 사용할 과실을 얻기 위한 유실수원과 제례공간을 상징하는 소나무림으로 구성하였다. 소나무림은 전각 복원 시점과 소나무의 성장 속도를 고려하여 전각의 배경이 될 수 있게 H5.0~H7.0 규격을 식재하였다.

셋째, 궁궐 방문자 편의를 고려하여 성역의 분위기를 방해하지 않도록 부지 양쪽 끝에 휴게공간을 배치하고, 배후림 내부에 산책로를 도입하였다. 최소한의 조경시설로서 외부공간에서 기능적으로 필요한 안내판, 휴게의자, 수목보호대, 경사로, 보행등·경관조명등을 배치하였다.

넷째, 문헌, 고회화, 사진 등 사료(史料) 고찰과 현장조사로 궁궐과 제례공간의 기존 식재 정보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원전영역 조경공간을 구성하는 전각 마당, 관람로와 휴게공간, 화계, 소나무림, 유실수원의 배식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흥덕전 마당에 현존하는 회화나무 노거수 외에 대표성을 가지는 선원전 앞뒤에 측백나무와 향나무, 은행나무를 대식하여 제례공간의 상징성과 장소성을 부여하였다.

살펴본 바와 같이 방문 장소로서 현대적 이용을 전제로 하는 궁궐 복원은 조선시대 원형경관만을 목표로 할 수 없다. 이때, 문화재 조경 작업은 객관적 사실(史實)을 근간으로 하되 기능적이고 경관적 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전문 영역으로서 역할이 크다. 선원전영역의 복원정비 계획은 이러한 실천으로서 의의를 지니며, 전각 중심의 인공물과 녹지가 잘 어우러졌을 때 궁궐의 경관이 매력적으로 완성된다는 인식을 제고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주 1) 2014년 보고서에서 전각 뒤편 녹지를 '상림원(배후림)'이라고 지칭하였으나 2020년 용역 수행 결과 적합하지 않은 명칭이라고 파악하여 본 연구에서는 '배후림'으로 명명한다.

주 2) 1593년 임진왜란 이후 의주에서 돌아온 선조가 월산대군의 저택을 '정릉동 행궁'으로 삼은 것이 덕수궁의 시작이다. 1611년 광해군이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경운궁(慶運宮)'으로 이름 지었으며, 1907년 순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고종황제가 계속 머물게 되어 장수를 빈다는 뜻의 '덕수궁(德壽宮)'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10]. 본 연구에서는 사업명에서 설정한 '덕수궁'으로 통일하고, 시간성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나 분석한 사료와 지도의 명칭을 따르는 경우 '경운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주 3) 「경운궁중건배치도(1907~1909년)」에는 흥원영역에 화원(花園), 수학원(修學院), 함희당(咸喜堂)이 표기되고, 「덕수궁평면도(1910)」에는 양화당(養和堂, 온실), 장용대(醬甕臺, 장독대), 수학원이 기재되었다. 당시 귀족의 교육기관이었던 수학원과 담장으로 분리된 공간은 고종황제가 의효전(懿孝殿: 순종황제의 순명효황후 민씨의 위패를 모신 혼전, 1920~1922년 창덕궁으로 이전)을 방문하면서 휴식

했던 덕수궁의 임시 후원이었다[7].

- 주 4) 화장실, 매표소, 관리사무소 등 공공건축물, 안내판, 휴게의자, 경사로 등 공공시설물, 임시건축물, 현수막시설 등 행사시설물로 구분하였다[17].
- 주 5) 2019년에 발족한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경복궁(철궁을 포함한다), 창덕궁, 덕수궁(승례문을 포함한다), 창경궁, 종묘(사직단을 포함한다) 및 조선의 능(陵)·원(園)·묘(墓)의 복원정비 및 보존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하부 조직으로 궁능서비스기획과, 복원정비과, 경복궁관리소, 창덕궁관리소, 덕수궁관리소, 창경궁관리소, 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조선왕릉 동부지구관리소, 조선왕릉 중부지구관리소, 조선왕릉 서부관리소를 두었다[18].
- 주 6) 詔曰, 孝經曰, 宗廟享之, 子孫保之, 有邦典禮, 以是爲重, 周祀先公以天子之禮, 此可爲萬世法, 太廟·南殿·慶基殿·濟源殿·塔源殿·華寧殿器用儀仗, 皆用天子典禮, 修改告由等節, 令掌禮院擇日舉行 - 『승정원일기』, 광무1년(1897) 9월 25일[19].
- 주 7) 정우진(2016)은 고종이 창덕궁 후원 옥류천의 요소를 경복궁 후원 오운각 권역으로 치환함으로써 공간의 규범을 중진된 경복궁에 도입하여 왕실의 위상을 세우려고 했다고 해석한 바 있다[24].
- 주 8) 『매일신보』에서 흥원 일대에 은행나무가 울창하였고(1920년 5월 11일), 그것이 영성문대궐(당시 경운궁과 분리된 선원전영역을 지칭함)의 경관을 특징짓는 대표적 이미지라고 회고하였다(1926년 5월 23일 기사)[25].

REFERENCES

- [1] 문화재청(2005). 『덕수궁 복원정비 기본계획』.
- [2] 문화재청(2014). 『덕수궁 선원전 복원정비 기본계획』.
- [3] 문화재청(2019). 『덕수궁 선원전영역 학술조사연구용역(건축, 미술사)』.
- [4] 문화재청(2016). 『덕수궁 조경 정비 기본 계획』.
- [5] 이강근(2010). 조선후기 선원전의 기능과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불교미술사학회 강좌미술사 35(-): 239-268.
- [6] 박상희(2003). 경운궁 선원전 터 보전을 위한 건축 설계 연구, 숙명여

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7] 문화재청(2020). 『덕수궁 선원전영역 조경 복원정비 종합계획 연구』.
- [8] 김영모, 이선, 진상철, 장종수(2004). 화성 행궁의 식생경관 복원을 위한 고증과 복원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2(4): 39-53.
- [9] 김충식, 정슬기(2018). 경복궁 경회루 권역의 식생경관원형과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46(6): 17-25.
- [10]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 홈페이지 (<http://www.deoksugung.go.kr>).
- [11] 안계복, 이원호(2014). 조선시대 궁궐정원의 원형경관 복원을 위한 제안,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2(3): 10-20.
- [12] 만선출판협회(1919). 『선철연선(명소, 사적, 미술)대관』.
- [13] 나라문화재연구소(奈良文化財研究所) 소장 『1915년 측도 경성(1915)』.
- [14]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www.museum.go.kr).
- [15]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2006). 『서울지도』, 예맥출판사.
- [16] 오다 쇼고(小田省吾)(1938). 『덕수궁사』, 근택상점(近澤商店),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도서관 소장.
- [17] 문화재청 수리기술과(2021). 『문화재수리업무편람』, (주)계문사.
- [18] 궁능유적본부 훈령 제21호, 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2021.5.1.)
- [19]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 [20]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오례 (http://sillok.history.go.kr/id/kda_200).
- [21] 남경공학원건축계 국부문물관리위원회(南京工學院建築系, 曲阜文物管理委員會)(1987). 『국부공묘건축(曲阜孔廟建築)』, 중국건축공업출판사.
- [22]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동궐도』.
- [23] 국립고궁박물관 홈페이지(www.gogung.go.kr).
- [24] 정우진(2016). 중건 경복궁 후원 오운각 권역으로 조명한 조선시대 궁궐 별원의 특성,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4(3): 1-17.
- [25]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https://nl.go.kr/newspaper>).

원 고 접 수 일: 2021년 7월 25일
심 사 일: 2021년 8월 13일 (1차)
: 2021년 9월 17일 (2차)
게 재 확 정 일: 2021년 9월 17일
3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